

『노사제가 만화로 남기는 신학교 이야기들』(임충신 글·그림, 가톨릭출판사)은 100여 년 전 용산 신학교에 입학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. 올 한 해 동안故 임충신 신부님의 삶을 통해 옛 신학교 모습과 생활을 다룹니다.

